**<곤지암> 언론배급 시사회 기자간담회 녹취록**

**일시: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

**참석자: 정범식 감독 / 배우: 위하준, 박지현, 오아연, 문예원, 박성훈, 유제윤**

**# 감독 & 배우 인사**

**정범식 감독>**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새롭게 ‘체험형 공포’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 때도 그렇고 결과물도 뭔가 좀 다르게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미흡한 게 있더라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한다. 와주셔서 감사하다.

**위하준>**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고 설렌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잘 봐주시길 바란다.

**박지현>** 호러 타임즈 행동파 멤버 역할 ‘지현’을 맡은 박지현이다.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무서웠을 것 같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오아연>** <곤지암>에서 4차원 막내 ‘아연’ 역을 맡은 오아연이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다.

**문예원>** 공포 체험 마니아 ‘샬롯’ 역을 맡은 문예원이다. 오늘 영화가 너무 무서워서 긴장하면서 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곤지암>에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다.

**박성훈>** 호러 타임즈에서 메인 카메라 담당 ‘성훈’ 역을 맡은 박성훈이라고 한다. <곤지암>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유제윤>** 호러 타임즈의 겁쟁이 맏형 ‘제윤’ 역할을 맡은 유제윤이다. 잘 부탁 드린다.

**#질의 응답**

**Q. 실제로 체험하는 기분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출했는지? 또한, 장소 별로 컨셉이 달랐는데, 어떻게 연출했는지?**

**[정범식 감독]:** 할리우드에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로 극중 인물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방식의 영화들이 꽤 있어, 그것만을 답습하는 식으로 가면 영화가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고민을 하다 좀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배우 분들한테 직접 카메라를 장착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잡아내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 해서 배우들이 99% 이상, 영화의 거의 전부를 찍어냈다. 그리고 사운드에 있어서도 기존 호러 영화처럼 계속 시끄럽게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호흡을 잡을 수 있게, 실제 소리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음악을 배제하고 극중에서 나오는 음악만 쓰는 식으로 비주얼과 사운드의 조합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체험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찍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동선을 짜고 연기의 강도를 맞춰 밸런스를 맞추는데 가장 주력을 해서 찍었다. 후반 때도 각 카메라의 특성 별로 색을 어떻게 맞출 지 계산해야 했다. 체험이라는 것은 그냥 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둬서 만들었다. 실제 공간에서 보여지는 병실만 있는 것 보다는 좀 더 그로테스크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허구의 공간들을 만들었다. 실험실이라든가 집단 치료실, 원장실 그리고 목욕실. 각 공간마다 비주얼적인 세팅을 하고 그것들이 관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코믹하거나 재미있는 떡밥을 깔고 맨 마지막에는 다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공포스럽게 그런 것들에 중점을 뒀다.

**사회자>** 장소별 컨셉 구상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줄 부분은 없는지?

**[정범식 감독]:** 사실 영화 속에선 상상이다. 허구인데,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어디서 누가 목매달아 죽었다 더라, 어디선 뭐가 나온다더라’ 하는 식으로 세팅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영화 초, 중반에 공포스럽게 많이 깔아두고 가는 방식이 일반 영화였다면, <곤지암>에서는 배우들의 재치라던가 생기 발랄함으로써 그것들을 장난스럽게 지나치게 하고, 이야기 했던 것들이 마지막에 다 구현되는 방식으로. 공포심으로 힘을 줘서 찍어내는, 앞과 뒤를 다르게 하는 방식을 연출적으로 기획했다.

**Q. 공포 장면 하나하나 계산하고 연출했다고 했는데, 촬영하면서 ‘아, 관객들이 이건 진짜 무섭겠다’ 또는 실제로 찍으면서 공포를 느꼈다던지, 감탄한 장면이 있었는지?**

**[정범식 감독]:** 찍을 때 무서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연출할 때 템포와 타이밍에 굉장히 중점을 둔다. 나타나야 할 것이 등장할 타이밍에 안 나오고, 와야 할 때 안 오는 것처럼 관객의 호흡을 밀당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호러 영화 연출할 때는 배우들과 동선을 맞추고 호흡했을 때 편집을 하면서 ‘관객들을 꽤 놀라게 할 수 있겠구나” 싶어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흐뭇하다. 배우들은 무섭게 느끼면서 촬영하는데,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조합이 잘되면 좋다. <곤지암> 후반에 나오는 공포 장면들 역시 촬영할 때, ‘아, 이게 관객들을 놀라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촬영했다.

**Q. 배우들이 직접 촬영을 했다. 촬영하는 것과 스크린에서 보는 건 느낌이 다를 것 같다. 영화를 본 소감은?**

**[박성훈]:** 철저한 계산 하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촬영과 연기에 집중하느라 화면이 어떻게 나올 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철저하게 관객 입장으로 영화를 봐서 지금 혼이 빠져있다.

**[박지현]:** 촬영을 함께 한 장면들을 제외하고 다른 멤버들이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어 굉장히 궁금했다. 생각보다 정말 무섭고 또 되게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게 봤다.

**[문예원]:** 영화 중간에 카메라 앵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다. 대본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오늘 영화로 다시 그 장면을 찍은 걸 스크린으로 보니까 느낌이 새롭고, 대본에서 본 만큼, 또 대본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전율이 왔다. 실제로 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재미있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Q. 촬영도 하시고 연기도 다 직접 했다. 두 가지 중 힘든 부분을 뽑자면 어느 것이 더 힘들었는지?**

**[오아연]:** <곤지암>은 현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작품이라, 감독님이 현장에서 디렉션을 주시는 게 많았다. 현장에서 주어진 새로운 대사와 또 새롭게 직접 찍어야 하는 것들이 혼란스러워서 처음에 힘들었다. 어느 순간 적응이 되니 촬영도 욕심이 나고, 대사도 애드립을 자꾸 욕심 내게 되더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들이 이제 초반에 고전하다가 차츰 작품 자체에 적응한 거 같아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유제윤]:** 사실 영화가 처음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촬영까지 해야 한다는 것도 어려웠지만, 어떤 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역할이 촬영을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촬영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다른걸 해야 하는 역할이었다면 그걸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을 테니까. 그렇게 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서 임했다.

**[위하준]:** 역할 상 다른 배우 분들에 비해서 촬영을 후반부에만 잠깐 했다. 그래서 보면서 ‘배우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겠구나’ 느꼈고, 촬영보다는 베이스캠프에서 모니터와 혼자 싸워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 그러나 감독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래도 잘 마칠 수 있었다.

**Q. 장면 중간 중간에 블랙아웃 되는 장면들이 있었다. 그 부분들은 의도한 것인지?**

**[정범식 감독]:** 영화가 생방송 컨셉이다 보니, 버퍼링이나 영상 끊김 현상 같은 것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다. 나름대로 리듬이나 템포를 생각하면서 버퍼링이라던가, 블랙아웃 시킨 그런 장면들을 썼다. 그때도 사운드는 계속 나오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각적인 정보를 제한하고 사운드로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좀 더 ‘체험 공포’에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봤다.

**Q. 공포 영화 촬영을 하게 되면, 공포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그런 류의 체험을 한 적이 있는지? 혹은 정말 너무 무서웠던 순간이 있었는지?**

**[정범식 감독]:** 배우들에게 시나리오는 처음에 공개가 되었지만 공간 같은 건 미리 보여주진 않았다. 배우들도 미리 공간들을 익숙하게 알고 나서 연기를 하는 것과, 처음 들어가서 보면서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면서 임하는 자세 같은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부러 체험이라던가 그런 건 최대한 보여주지 않고 당일 날 하는 형식으로 했다.

**Q. 촬영했었던 장소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장소들이 있다면?**

**[박성훈]:** 영화 특성 상 최대 19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돌아서, 앵글에 안 걸리는 각이 없다. 그래서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면 모든 스탭들이 숨어 있었다. 동료들이 있을 땐 그나마 좀 의지가 되는데, 혼자 단독으로 다른 층에 있다가 402호로 뛰어가는 신이 있었는데 그 같은 층에 매니저만 같이 숨어있었다. 그 때 매니저에게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했는데, 굳이 따라오더라. 자꾸 따라와서 “왜 자꾸 따라오느냐” 했더니, “저도 혼자 있는 거 무서워요” 하더라. 거의 100키로에 육박하는 친구가 되게 무서워하니까 제가 더 무서웠다.

**[오아연]:** 제 캐릭터도 그렇고, 저는 무서운 걸 잘 못 느껴서 특별히 현장에서 막 무섭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다.

**Q. 현재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잡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영화에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영화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영화의 앞 부분과 뒷 부분에 ‘실제 지명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넣었다. 이렇게 추가한 이유는? 또, 공포 영화가 요즘에는 사시사철 나오긴 하지만, 봄이 시작되는 3월의 끝자락에 개봉을 결정했다. 계절적으로 지금 개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범식 감독]:** 개봉시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를 신뢰하고 있다. 관객의 추이라던가, 사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배급 시기와 경쟁작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잡은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도 4월, 5월에 외국 호러 영화는 크게 성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3월 28일 시기는 잘 잡은 것이 아닌가 싶다. 자막을 앞뒤로 넣은 것은 제작사와 저희가 의논을 해서 진행했다. 물론 영화이고 허구라고 매스컴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피해자가 생기면 안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진짜인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것이 영화에는 이익일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아예 허구이고, 특정한 인물이나 건물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명시 해야 또 다른 잡음이나 피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 뒤로 넣었다. 그리고 가처분금지신청은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작사가 법적인 검토를 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노이즈 마케팅’ 이런 것이 아니고, 바라 건데, 잡음 없이 영화를 영화로 잘 즐겨주실 수 있는 새로운 호러 영화로 생각해주셨음 좋겠다. ‘새로운 한국 호러 영화도 이제 볼 만한 게 나오는데?’ 같은 시각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세계적으로는 다시 호러 영화가 붐이다. 한국 관객들도 호러 영화 좋아하시는데 유독 한국 호러 영화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에 건강한 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Q. 감독님 하면 가장 먼저 <기담>을 먼저 떠올리고, <기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엄마 귀신’이다. ‘엄마 귀신’을 했던 박지아 배우가 영화에 다시 한번 귀신으로 출연했다고 하는데, 그런 ‘엄마 귀신’이라는 강렬한 캐릭터가 줬던 귀신의 비주얼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다. 엄마 귀신을 넘는 캐릭터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는지? 그리고 귀신의 캐릭터 비주얼 연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정범식 감독]:** 제 동생이 연출한 <석조저택 살인사건>에도 박지아 배우가 나온다. <기담> 이후에 박지아 배우와 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는 관계인데,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는 <기담>을 촬영한지 10년이 된 해였다. ‘엄마 귀신’이 한국에서 레전드 귀신으로 짤이 돌아다니고 그러더라. 그래서 10년 만에 관객들에게 즐거운 뭔가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박지아씨가 흔쾌히 응해주셔서 의기투합했다. <기담> 당시에도 그냥 시나리오에 ‘방언을 중얼거린다’라는 한 줄로 명시했던 것을 박지아 배우가 체화시켜서 왔었다. 이번에도 이미지적인 건 저희 쪽에서 연구를 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것들을 디렉션 하지 않았다. 귀신이 호흡을 한다든가, 귀신이 숨쉬는 소리. 그런 것들은 박지아 배우가 연구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귀신으로 등장하는데 만족할 만한 비주얼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기담>과 비교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다.

**Q. 7명이나 되는 배우들이 같이 활약을 하는데, 모두 신인배우다. 꼭 신인이어야 했던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캐스팅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는지?**

**[정범식 감독]:** 처음 촬영 방식에서부터 영화의 형식, 배우의 기용 등을 고민하고 제작사와 의논할 때, 이것이 ‘체험 공포’이고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다가가려면 일단은 알려지지 않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어야 더욱 생생하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했다. 유명한 배우들의 전작이나 스타성, 그리고 아우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기대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배우들이 느끼는 감정, 호흡, 그리고 캐릭터들로만 승부를 걸고 싶어서 여기 있는 배우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많은 오디션을 봤는데 그냥 대본을 주고 오디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첫인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처음에 배우들이 들어와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하면 촬영을 그걸로 다음에 아무 말도 안하고 밖에 나가서 지금이랑 똑같이 해주는데 다시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한 번을 해서 다시 녹화하고, 그런 다음에는 또 아무 말도 안하고 다시 나가서 이번에는 ‘우리들이 아주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서로 반말로 하면서 지금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재현해달라’고 했다. 어떤 배우들은 같은 상황을 외워서 하는 배우들이 있고, 어떤 배우들은 매 테이크를 할 때마다 계속 새롭게, 지금 처음 목격하고 처음 느끼고 처음 반응한다. 여기 있는 배우들은 모두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잘해주신 배우들이라 함께하게 됐고 7명의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은 결과물이 여러분께 보여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감독님과 함께 촬영했던 소감이나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지?**

**[위하준]:** 개인적으로는 혼자 연기한 부분이 7~80%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정말 컸다. 성격상 원래 걱정도 많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잘해야겠다는 부담이 너무 컸는데, 항상 감독님께서 배우 위하준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많이 이해해주시고 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를 감독님이 아닌 선배님, 동네 정말 친한 형님 같은 느낌으로 많이 배려하고 이해해주셨다. 그래서 촬영 현장이 다른 배우들에 비해 너무 편해서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배우들이 정말 고생했다고도 많이 느낀다. 촬영도 편하게 했고,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크다.

**Q. 한국 공포영화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정범식 감독]:** <기담>을 만들 때는 30대였는데, 그 영화를 만들 때는 왠지 조숙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인생이나 삶이라든가 사랑을 쓸쓸하게 바라보는 정서를 많이 담으려고 했고, 그걸 미학적인 장치를 통해 아름다운 비주얼로 구현하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사실은 나이는 40대가 됐는데 젊은 배우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어떤 호러 컨텐츠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특별한 정서 같은 것들이 없어도 지금의 젊은 세대들는 감응하고, 조응한다고 생각한다. 그 지점이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기자님 말씀처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게 특별한 정서, 극을 끌고 가는 주된 정서, 캐릭터의 정서보다는 그냥 옆에 있을 법한 내 친구 같은, 나 같은, 그런 감정들과 생생함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귀에 들리는 재미있는 컨텐츠의 가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 속에 농익은 주 감정을 넣기보다는, 호러 컨텐츠로서 젊은 세대들이 즐기고, 재미있어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연출했다. 물론 이스터에그라고 게임 개발자들이 메시지라든가 어떤 장치를 넣어놓는데, 사실 <기담>에도 아직까지도 안 밝혀지고 가끔씩 그걸 지금 보시고서 ‘그건 그런 의미 아니냐’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이번 영화에도 그런 상징이나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건 당장 개봉한 뒤에 아실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기담>처럼 알려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재미로 숨겨뒀을 뿐, 보통의 극영화가 갖는 인물들의 주된 감정을 꼭 녹여내려고 하지는 않았다.

**Q. 여배우들의 경우, 얼굴을 너무 리얼하게 드러낸다.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힘든 부분은 없었는지?**

**[박지현]:** 한 촬영 스태프 분이 저희에게 ‘예쁘게 담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사실 저는 배우로 살면서 이런 공포영화에서 인간이 공포의 극에 달했을 때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기회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웠고, 관객 분들이 저를 보고 충분한 공포를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다.

**[오아연]:** 19대의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영화를 통해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잘나와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도 영화에 참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남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문예원]:** 개인적으로 되고 싶은, 닮고 싶은 여배우들은 외적인 아름다움도 충분히 갖고 계시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에너지가 나올 때, 그 배우가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곤지암> 같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곤지암>을 촬영하면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내가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많이 배워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Q. 오랫동안 호러 장르에 한 우물을 파왔다. 최근에 해외 호러는 국내에서 잘 됐지만 한국 호러는 빛을 못 봤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범식 감독]:** 외국 호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지런하게 연구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소재 발굴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호러를 줄 수 있는 법칙 같은 것들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학도 그렇고 장르 문학이 이전부터 토양이 미국보다 탄탄하지 않은 베이스에서 약간 사실주의적인 베이스에서 많이 출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에 있었던, 혹은 드라마적인 원한, 원혼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만들게 되니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관객들이 식상하게 느끼는 것 같다. 맨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비슷한 형식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자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봤다.

**# 마지막 인사**

**[유제윤]:**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 많은 관객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 <곤지암>을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감사 드린다.

**[박성훈]:**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찍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 드린다. 감사 드린다.

**[문예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 영화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스탭들도 되게 열과 성을 다해 촬영했었던 것 같다. 지금 주시는 관심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많이 부탁 드리겠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

**[오아연]:**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저희 배우, 스탭, 감독님 모두다 잠을 잊은 채 촬영했는데, 저희 <곤지암>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린다. 감사하다.

**[박지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들도 처음 있는 자리라 그런지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잘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위하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감독님, 저희 배우들, 다른 활동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감사 드린다.

**[정범식 감독]:** 와주셔서 감사 드린다. 저야 늘 하 던 비슷한 장르의 영화를 하는 건데, 여기 있는 배우들은 생에 처음 큰 역할을 맡고 촬영에서부터 연기까지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면서 너무나 잘해줬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배우 분들 기억해주시고 좋은 기사 써주셨으면 좋겠다. 벌써 모니터링 시사 반응들이 SNS 상에서 떠돌고 있는데, 관객 분들이 호평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 보지 않은 분들 중에서 ‘한국 호러 뻔하지’하면서 ‘안 본다’는 분들 계신다. 이 역시도 사실은 한국 호러 영화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보시고 판단해주시면 어떨까 싶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모두가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론 무서운 것도 있으면 좋겠고, 배우들이 너무 귀엽게 연기를 잘해줘서 귀여운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귀엽고 무서운 영화 <곤지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